

II. IMF 경제 정보

1.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과 파급 효과

- (현황) 최근 인도네시아는 정치적,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모라토리엄의 선언 가능성이 있음
- (파급 효과)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, 자금 비용을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외채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 - 또한 홍콩 달러貨의 폭락에 이은 중국 경제의 침체, 일본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(1) 동남아 통화 위기 현황

- 인도네시아의 대외채무지불유예(MORATORIUM)¹⁾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
 -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금융 시장은 다소 진정세를 나타내었으나, 인도네시아 루피아貨가 1월 22일 하루에 43.5% 폭락하여 금융 공황 상태로 치달았음
 - 지난달 27일 무디스社(Moody's)는 인도네시아의 민간 부문이 외채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으며, 태국 정부는 약 220여개에 달하는 민간 기업이 파산했거나 파산할 것이라고 발표함
 - 최근 양국이 강력한 금융개혁을 재 천명하고, 미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남아 지역의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, 동남아 통화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음
 - 최근 동남아 증시는(2월 2일 기준) 지난달 27일에 비해 전체적으로 10% 이상 상승(홍콩 14.3%, 방콕 11%, 마닐라 18%, 싱가포르 11.8% 상승)

1) 대외채무지급이 불가능한 경우, 당사국의 채무 지불 의사에 따라 지급거절(Repudiation)과 채무재조정(Debt-Restructuring)으로 구분할 수 있음. 국가가 대외채무지급 불능상황(Insolvency)에 돌입하게 되면 채권국과 채무지급에 따른 일정을 재조정하게 되는데, 그 방법으로 한시적인 채무상환중단(Moratorium), 상환연기(Rescheduling), 재협상(Renegotiation), 재융자(Refinancing), 채무 삭감(Debt-reduction) 등이 있음. 반면 채무지불 자체를 거부하는 Repudiation의 경우, 모든 대외 거래가 중단되며 국가는 경제적 고립(Economic Isolation) 상태로 돌입하게 됨.

(2)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

- 태국, 인도네시아 등의 외채 규모가 한국에 비해 작고 단기 외채의 비중이 97년 10월 기준으로 약 34% 정도여서 IMF 및 국제 사회의 지원이 뒤따를 경우 국가부도(Default)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수 있음
 - 이들 양국은 일본 제품의 주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양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 가운데 일본 자금의 지분이 높고, 일본이 동남아 시장에서 정치,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어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됨
 - 일본의 아시아 지역 대출 규모는 약 2,6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출 규모는 약 230억 달러임

- 그러나, 민간 차원에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급을 거절(Repudiation)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 - 인도네시아 정부가 민간 기업의 채무 보증 및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 - 인도네시아의 총외채는 약 1,170억 달러 (97년말 기준: GDP대비 약 50%)이며 이 가운데 정부 부문이 420억 달러, 민간 기업 부문은 750억 달러임
 - 루피아값 가치는 작년 7월 달러당 2,600루피아에서 최근 12,000루피아까지 상승하여 대폭 평가 절하된 상태인데, 환율의 절하 및 차입 금리의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외채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었음
 - IMF나 국제사회의 특단 조치로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의 채무상환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, 따라서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
 - 대통령 선거가 금년 3월에 있어 7선을 노리는 수하르토 정부가 IMF에서 요구하는 긴축 재정을 이행할 여력이 없으며
 - 인도네시아는 고무, 목재,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모라토리엄 선언후 경제적 고립시에도 자금 자족이 상당기간 가능함
 - 또한 금년 4월까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키라는 일본 대장성의 조치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들의 對 동남아 채무 상환 압력이 가중될 것임

(3) 인도네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시의 파급 효과

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○ 현지 진출 기업이나 금융 기관의 타격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추가적인 외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

- 동남아는 한국 수출 시장의 약 9%를 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관련 기업의 평가등급 및 대외신용도 하락이 예상됨
-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채권이 부실화되고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철수도 어려워 짐
- 또한 동남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채무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의 대외채무지급 일정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임
- 해외 채권단의 단기채권 만기 연장 거부, 여타 채무의 조기 상환 요구와 함께 민간 투자의 대대적 회수 가능성이 있음
- 한국의 총외채 1,530억 달러(97년 12월 20일 기준) 가운데 단기 외채가 820억 달러인데 최근 뉴욕협상에서 만기 연장된 차입분은 작년 말에 만기 도래한 240억 달러에 불과함

②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○ 홍콩 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, 일본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증가에 따른 미국채 매각과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

- 동남아 경제 전체가 불안하면 홍콩 달러화도 폭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되며 중국 경제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
-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전체가 침체되면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증가할 것이며,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본은 약 3,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음
- 이는 미국의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켜 미국 증권시장이 침체되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 일본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것임
- 미국의 경우 아시아지역 11개국(일본, 한국, 중국, 대만, 태국, 인도네시아, 인도 등)이 미국 총수출의 30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, 금융 부문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임

(이 준 호)